

눈먼 이를 고치시는 그리스도
엘 그레코(El Greco, 1541-1614)
1570, 캔버스에 유채, 119x146cm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미국 뉴욕

입당송 | 시편 119(118), 137, 124

주님, 당신은 의로우시고 당신 법규는 바르웁니다. 당신 종에게 자애를 베푸소서.

제1독서 | 이사 35, 4-7ㄴ

화답송 | 시편 146(145), 6ㄷ-7, 8-9ㄱ, 9ㄴㄷ-10ㄱㄴ(◎ 1ㄴ)

◎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 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 주시네. ◎

○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

○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 버리시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온아, 네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

제2독서 | 야고 2, 1-5

복음환호송 | 마태 4, 23 참조

◎ 알렐루야.

○ 예수님은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셨네. ◎

복음 | 마르 7, 31-37

영성체송 | 시편 42(41), 2-3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제 영혼이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하나이다.

질병과 구원



문종원 베드로 신부 | 주교좌 기도 사제

나이가 들수록 병에 대해 더 자주 이야기합니다. 병과 병에서 비롯된 고통은 특정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젊은 사람들이라고 그 문제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병에 걸리며, 때로는 매일 병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걸리면 곁에 있는 사람도 고통을 받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이 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렇게 질병으로 인한 고통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그 의미를 찾으려고 애씁니다. “질병은 의미가 있는가? 참는 것 외에는 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일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치유 하십니다. 진흙에다 침을 섞는 아주 소박한 방식을 취하셨습니다. 이 치유 사화는 유배에서 돌아오리라는 희망과 관련한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때에 눈먼 이들은 눈이 열리고, 귀먹은 이들은 귀가 열리리라.”(이사 35,5) 이는 모세에게 하신 말씀, 즉 “누가 사람을 말 못하게 하고 귀먹게 하며, 보게도 하고 눈멀게도 하느냐?”(탈출 4,11)하는 말씀을 반영합니다. 나이가 죽음과 병고가 극복될 때인 메시아 시대를 예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신약성경은 영혼의 질병이 다양하며, 우리는 여기에 육신의 병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영혼이 죽음에서 살아남고 하느님과 일치할 수 있게 하는 신비스럽고 영속적인 부분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경고하십니다.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마태 10,28) 또한 당신의 말씀과 업적들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마르 8,18)

예수님께서서는 자주 바리사이들을 눈먼 인도자로 언급하십니다. “눈먼 이가 눈먼 이를 인도할 수야 없지 않느냐? ...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루카 6,39; 41-42) 영혼이 병든 위선자는 늘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면서 안전이나 권력을 향한 자신의 야심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진실한 자기 자신과 관계를 끊게 되고, 하느님과도 관계를 끊습니다.

누구나 병에 걸릴 수 있고, 병에 걸린 채 태어날 수도 있으며, 유행병의 희생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병은 여러 원인에서 기인합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병이 성화로 이끄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 병은 심리적인 온전함에 이르고 주님을 만나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 됩니다. 즉,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전형적인 예가 하혈하는 여인의 치유 이야기입니다.(루카 8,43-48 참조) 삶을 살아가면서 필수적으로 겪게 되는 실패와 고통도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게 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눈먼 이를 고치시는 그리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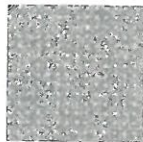
오늘 이 성화는 이번 주 복음 말씀을 아우르며, 하느님 아버지의 일에 마음을 모으고 그분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눈, 귀, 입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직접 세우신 교회에 만 열어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때로 신앙에 의심을 품거나, 어리석은 이단의 현혹에 속아 넘어가기도 하며, 교회와 진리에는 눈이 멀고, 귀가 먹고, 입을 열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성찰토록 이끌어 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가톨릭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성화
해설

신지철 바오로 신부 | 교구 성미술 담당



한수산 요한 크리스토스토모 | 소설가

천형의 십자가

제 서재에는 나무 십자가가 하나 걸려있습니다. 한센 병 환우들을 위해 평생을 바치신 ‘성라자로마을’ 이정재(알렉산델) 신부님이 선물로 주신 십자가입니다. 제게 세례를 주신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은 해외 모금 여행에서 귀국하는 길이었습니다. 전날 저녁, 제가 머물고 있던 도쿄에 도착해 다음 날 아침 저를 만나고 바로 공항으로 나가야 하는 빠듯한 일정이었습니다. 하룻밤 잠자리를 위해 투숙한 곳이 일본의 소위 비즈니스호텔. 이름이 호텔이지 침대와 의자 하나가 있는 그 방은 한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게 좁디 좁았습니다.

“내가 이번에 이걸 준비했어.” 하시며 신부님은 007가방 하나를 꺼내놓으셨습니다. 그 가방에는 성작을 비롯한 여러 가지 미사용품들이 차곡차곡 들어있었습니다. ‘마치 전문 킬러가 들고 다니는 총 가방 같네.’ 싶었지요.

부활 대축일이 지나고 맞는 첫 주일, 미사 도구를 꺼내신 신부님은 저 하나를 앉혀놓고 미사를 드렸습니다. 제 생애에 찬란하게 빛나는 미사의 하나였다고 저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마주 앉을 수조차 없이 작고 좁은 방에서 사제는 침대 위, 신자는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드린 미사는 정결했습니다. 신부님은 저를 위해 강론까지 하셨습니다.

“사람은 흠에서 왔고 다시 흠으로 돌아간다. 사람아,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하는 재의 예식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라고 하셨습니다. 미사가 끝나자, 신부님은 신문지로 싸 무언가를 꺼내며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선물입니다. 지난달 라자로마을의 환우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 방에 걸려있던 걸 내가 떼어서 가지고

온 거예요.”

나병 또는 문둥병이라 불렸던 한센병은 하늘이 내린 벌, 천형(天刑)의 하나였습니다. 살이 썩고 물러 떨어지는 병입니다. 도둑놈 피하려다 문둥이 만났다는 소외와 차별 속에 버림받은 채 병든 몸을 살아야 했던 한센병 환자, 고통 속에서 살다 간 그 환자와 평생을 함께한 나무 십자가. 그 십자가를 저에게 주시려고 손수 떼어서 신문지로 말아서 가지고 오신 신부님... 눈앞이 흐려왔습니다.

그 십자가가 지금 제 서재 한편에 걸려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저는 ‘천형의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거기 커를 이루며 엉겨 붙어있는 어느 나환우의 기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 또한 그 환우와 결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살아야 하는’ 목숨이라고 말하듯 무언가가 나에게 ‘써야 하는’ 목숨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 작가로 살아온 나의 숙명, 이 또한 천형의 길, 저의 삶은 오직 글을 쓰는 저의 길을 가는 것으로 다하는 것이라고...

한컷
교리

오늘날
문화와 생태 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새로운 습관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찬미받으소서 209항



마르코와 함께 떠나는 복음 여행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 (마르 11,17)



이명제 요셉 신부 | 문화홍보국 부국장

마르코는 예수님께서 파스카 축제 직전 예루살렘에 머무시며 있었던 일들을 상대적으로 길고 상세하게 전해줍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겠지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성전을 두루 살펴보신 예수님께서 밤이 되어 동남쪽으로 2km 정도 떨어진 베타니아로 가서 묵으십니다. 둘째 날 아침, 예수님께서 그곳을 나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때 말라버린 무화과나무를 바라보시며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운명을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 전날처럼 성전으로 가시는데, 여기서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성전 뜰 밖에는 성벽을 따라 주랑(柱廊)이 있었는데, 그곳 복도는 성전세를 낼 수 있도록 이스라엘 화폐로 바뀌주는 환전상들과 성전에서 제사를 봉헌할 때 바치는 희생제물을 파는 상인들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마르코는 예수님께서 “환전상들의 탁자와 비둘기장수들의 의자도 둘러앉으셨다.”(마르 11,15)라고 간단하게 그 장면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언서에 기록된 말씀들을 인용하시며 성전이 진정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하는지 사람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고 증언합니다. “나의 집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마르 11,17)

제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분노하신 모습을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

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그들을 사로잡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축제는 평범한 예루살렘 주민들에게는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순례객을 대상으로 한몫 챙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 앞마당에서 장사를 하는 것이 묵인되었고 또 어느 정도 법적으로 허용되기까지 했습니다. 장사꾼들은 자신들의 밥줄인 가판대를 뒤엎으시는 예수님을 보자 눈이 뒤집혔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놀람과 두려움에 짓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스승님 곁에 멀뚱히 서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수님을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혹과 불인함이라는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그리고 자신들에게 피해가 된다는 이유로 점점 예수님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가 거룩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찬미와 찬양을 드리는 기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눈앞에 보이는 이득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 갑니다. 달리 생각해 보면, 어떤 부분에서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듯 보입니다. 주님의 기도하는 집인 거룩한 성당이 진정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을 경배하기 위한 곳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인간적인 친교의 자리로, 심지어 하느님이 없는 그분의 위로를 만들어 내기 위한 장소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성전은 무엇인가요?

악감정으로부터의 탈출: 사랑의 덕



방종우 야고보 신부 |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윤리신학 교수

세상에는 가난과 병마, 불합리한 상황, 전쟁의 고통 등 여러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에는 ‘연민’의 감정이 생깁니다. 그리하여 후원을 하거나 사회적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가까운 이웃들에게는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회사, 본당 공동체 안에서 겪게 되는 갈등 안에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분노하며 미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참으로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느님을 섬기며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내 마음속에 자리한 원수, 미움의 대상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할까요? 하느님께 대한 사랑은 반드시 이웃과 피조물에 대한 사랑을 동반해야 하며 행위로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원수를 용서하는 것은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구체적 표현입니다. 그리하여 요한 1서 4,20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누가 ‘나는 하느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아아,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인간적 갈등 앞에서 저는, “그래도 무조

건 원수를 용서하고 화해하십시오.”라는 실천 불가능한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상대의 입장을 깊이 이해하고 화해하는 것이 가장 최종적인 것이 되어야 하겠지만 용서와 사랑에는 일종의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점은 원수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용서와 화해를 동의어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용서는 화해가 아닌, ‘악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화해와 사랑은 그 이후의 결실입니다.

한편, 용서의 반대말은 ‘악감정’이며 그 열매는 증오와 미움입니다.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왜 그토록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을 강조하셨는지 분명해 집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에게 악감정을 품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양심과 분노가 가득해져 오히려 불행해 집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험담, 증오, 원망, 혐오. 이 얼마나 우리 스스로에게 상처 주는 것들입니까? 이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원수와 나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그를 잘 돌보아 주세요. 제가 주님의 마음을 닦게 해 주세요. 서로 악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올릴 때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상처를 보듬어주실 것이며 끝내 이웃과 화해할 기회를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이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시작입니다.



아홉 번째 인터뷰!

서울대학교 중고등부 청소년 사목 신입 부서원

이번 주는 본당 교사 퇴임 후에 청소년과 청소년동반자를 위해 봉사를 이어 나가는 교리 교사를 만나보았습니다. 교육부, 미디어부, 찬미부로 이루어진 서울대학교 중고등부 청소년 사목 부서에 오신 신입 부서원 선생님들 세 분을 소개합니다.



교육부
김성규 요셉



교육부
김유진 아녜스



찬미부
김한주 글라라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 주세요.

김요셉 안녕하세요. 장위동성당에서 교사 생활을 마치고 중고등부 신입 부서원이 된 김성규 요셉입니다.

김아녜스 마찬가지로 중고등부 교사 퇴임 후, 청소년 사목 부서원이 된 목동성당 김유진 아녜스입니다.

김글라라 창동성당 출신 찬미부 김한주 글라라입니다.

교구 부서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김요셉 본당 교사 생활을 마치고 나서 어떤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무렵, 청소년 사목 부서원이 가장 이끌렸습니다.

김아녜스 저는 부서 활동을 하면서 부서원들과 하느님을 함께 느끼고 청소년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본당 교사였다면, 주일학교 여름 캠프를 다녀왔을 시기네요. 캠프를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적도 많았을 텐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힘을 얻었나요?

김글라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

이 환하게 웃으며 느낄 즐거움을 생각하며 힘을 얻었습니다.

김아녜스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들은 신부님과 수녀님 그리고 동료 교사들에게 자문을 구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캠프를 기다리며 설레는 학생들을 보면서 힘냈던 것 같아요.

여름 캠프 준비와 주일학교 행사를 통해 신앙 면에서 달라진 점이 있나요?

김요셉 매 캠프와 행사 때마다 하느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특히 일상에서 벗어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큰 기쁨이 됩니다.

김글라라 교리와 행사를 반복해 진행할수록 아이들에게 하느님 말씀을 전달하는 것에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교서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임을 깨달으며 모범적인 신앙인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름 캠프 안에서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은 무엇이었나요?

김아녜스 학생들이 캠프를 통해 하느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저도 같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김요셉 모든 시간이 다 행복하지만, 배려하고 숭선수범하는 모습이 다른 이

들에게 큰 도움이 될 때 교사의 소중함을 생각해보게 되고, 저도 그중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본당 주일학교 교사, 부서원을 하면서 만난 하느님은 어떤 분이었나요?

김글라라 제가 만난 하느님은 저를 이끌어주는 분이셨어요. 캠프나 다른 행사를 준비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가 많았는데 항상 길을 마련하시어 제가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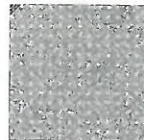
김아녜스 언제나 제 곁에 계시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의 행동뿐 아니라 생각까지 삶의 모든 여정에 동행하시면서 아낌없이 사랑을 주는 분이셨어요.

인터뷰를 마치며, 부서원으로서 앞으로 하느님께 바라는 은총은 무엇인가요?

김요셉 항상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 지혜와 사랑의 은총을 청합니다.

김아녜스 기도 안에서 하느님을 자주 만나며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김글라라 새로운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는 저에게 더 많은 배움의 기회를 주시고 하느님 말씀을 들려주시길 청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움 - 심미적 존재



신승환 스테파노 | 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름다운 것을 좋아합니다. 아름다운 노래, 아름다운 꽃 등, 심지어 사람조차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찾는 마음은 인간 본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진화생물학에서는 생존에 유리한 형질이 아름다움의 토대라고 말합니다. 예술가들은 아름다운 예술의 기준을 만들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추하다고 합니다. 고급 예술과 고전 예술 작품이 지닌 탁월함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테지요. 과연 아름다움에 대한 이런 기준은 타당할까요?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생리적으로 아름다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마음을 통해 아름다움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이 마음은 생리적 차원을 넘어 문화적이며 의미론적입니다. 그러니 아름다움은 문화적으로 결정된다고 말해도 좋습니다. 진화생물학적 인간학은 문화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판단에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물론 문화를 공유하기에 아름다움이나 예술에 대한 보편적 느낌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두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모두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그때마다 다르게 형성되기도 합니다. 이는 예술사를 돌아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지요.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몸과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우리가 지닌 의미의 터전을 벗어나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자연적 조건과 문화적 토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람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아름다움 역시 그러합니다. 인간의 마음과 느낌은 몸이라는 보편성 안에서 형성되지만, 그럼에도 그때마다의 고유한 문화적 토대를 벗어나 있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학의 동

일성과 차이 원리입니다. 같은 인간이기에 우리는 동일성을 지니지만, 그럼에도 나만의 고유함에서 오는 차이를 지닙니다. 예술은 아름다움의 동일성을 차이로 만들어냅니다. 차이의 아름다움이지요.

철학은 언제나 아름다움을 진리 및 선(善, 좋음)과 관련하여 논의합니다. 참됨과 좋음은 그 본성 때문에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은 참됨과 좋음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은 참되고 좋은 것이지요. 가짜 꽃이 초라하게 보이고, 표절 예술과 진부한 예술이 아름답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아름다움을 느끼고 아름다움을 만드는 것은 우리 안에 참됨과 좋음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것도 본성적으로 이런 특성을 가꾸고 지켜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은 고난이 없거나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참됨과 goodness를 간직하기에 그러합니다. 아름다움을 찾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면 사람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존재일 수밖에 없지요. 꽃보다 사람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올곧음과 참됨, 정의와 열정, 이웃을 향한 희생은 물론, 자기 절제가 뛰어난 사람을 아름답다고 말하지요.

철학에서는 “예술이 구원과 해방을 준다.”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아름다움을 느끼고 아름다움을 만드는 그 마음이 우리를 온갖 억압과 구속, 무지와 야만의 어둠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야만이 넘치는 곳에서의 예술을 하고, 고통받고 죽어가는 이들을 외면하지 못하고 기꺼이 함께하려는 것은 아름다움에 대한 마음 때문입니다. 인간은 아름다움 자체, 심미적 존재입니다.

9월은 '순교자 성월'입니다

교회는 해마다 9월을 순교자들을 더욱 공경하고 기억하는 순교자 성월로 지내고 있습니다.

알림 접수: 서울주보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78년 9월 12일 조인원 빈첸시오 신부(71세)
- 1991년 9월 14일 김덕계 치릴로 신부(64세)
- 2002년 9월 9일 최서식 라우렌시오 신부(65세)
- 2009년 9월 12일 남영희 이시도로 신부(74세)

교구청 알림

상설고해소 휴무 안내

때: 9월16일(월)~18일(수) / 추석 연휴
문의: 02)774-1784 명동대성당 사무실

'슬픔 속 희망찾기' 9월 유가족 미사 안내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분들만 참여 가능합니다
때, 곳: 9월21일 매월 세번째(토) 10시(목주기도), 10시30분(미사 봉헌),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
문의: 02)727-2495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2024 가톨릭중등교육자 성지순례

대상: 서울시내 중고등학교 가톨릭 신자 교직원 누구나 / 신청: 구글 온라인신청서
때, 곳: 9월28일(토), 감곡매곡성모순례지성당(음성군) / 출발: 가톨릭청소년회관(역삼동)
문의: 02)566-5456 지회장 또는 사무실

사목국 직장사목팀

- 1) 가톨릭 소방공무원 (자기돌봄을 위한 1일 피정)
문의(접수): 02)727-2081, 010-6234-6910 직장사목팀 큰사랑봉사회
- 2) 제2회 그린아트페스티벌
소방관, 예술인, 시민들이 참여하는 생명문화와 환경캠페인 나눔의 장 / 회비 없음
예코가방만들기 등 체험프로그램 선착순 마감
때, 곳: 9월21일(토) 13시~20시, 청년문화공간 JU 1층 카페(전철 2호선 홍대입구역 2번 출구)
주최: 직장사목팀 소방사목 큰사랑봉사회 / 후원: 서울시
문의: 02)727-2081 / 카카오톡 ID: 그린아트축제

환경사목위원회

- 1) 제48기 천주교 생태영성학교
내용: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배우고 실천합니다", 하늘땅물벗 소개, 수료미사 및 수료식
대상: 「찬미받으소서」를 배우고 실천할 사람
때, 곳: 9월24일~10월29일 매주(화) 19시~21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총 6회) / 회비: 1인당 3만원(교재비 포함)
접수: 9월13일(금)까지 마감(이메일: ccocatholic@hanmail.net)
문의: 02)727-2278, 2283 환경사목위원회
- 2) 제51회 가톨릭 예코포럼
대상: 관심 있는 모든 신자 및 수도자, 성직자
주제: '풍 · 땅 · 밥을 잇는 경축순환농업' / 회비 없음
때, 곳: 9월11일(수) 19시~21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명동)
문의: 02)727-2278, 2283 환경사목위원회, 02)727-2277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 3) 제66차 피조물 보호를 위한 미사(우리의 지구를 위한 미사)
대상: 기후위기와 생태환경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과 후원회원 / 주제: 임현호 신부(환경사목위원회 부위원장)
때, 곳: 9월19일(목) 11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명동)
강론: 이재돈 신부(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2025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신입생 모집
사제지망 일반예신 학생 및 체계적인 신학 공부를 희망하는 수도자, 남녀 평신도를 모집합니다
지원자격: 고교졸업(예정)자, 대학수료자, 수도자, 만학도(만 30세 이상)
원서접수: 9월9일(월)~13일(금) 인터넷 접수
면접평가: 11월1일(금) / 문의: 02)740-9704, 9705
홈페이지: <https://songsin.catholic.ac.kr>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 1) 하반기 영성심리아카데미
교육명: 기도를 시로 쓰기, 기도학교, 뮤지컬, 바이올린, 해금, 이태리어 배우기, 현대미술, 집단상담, 우울과 불안 강좌 외 / 문의: 02)727-2126
신청: 홈페이지(<http://seoulcpc.catholic.or.kr>) - 교육신청
- 2)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등 성인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명동),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문자): 02)727-2139(월~금 10시~17시)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9월애 동행' 순례길 걷고, 기부하기 안내

때: 8월15일(목)~9월29일(일)
참여방법: ① 성지 및 순례지(11곳),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순례자여권세트' 구입, ② '천주교 서울 순례길' 걸으며 스탬프 찍기, ③ 순교자성월을 담은미사(9월29일)에 참여하여, 완주여권 제출 후 축복장 수령 / 문의: 02)2269-0413
구입처: 가회동성당, 광희문순교자현양관, 교구역사관(명동), 국군중앙성당(예고개성지), 당고개순교성지, 삼성산성당, 새남터순교성지, 서소문박네거리순교성지, 절두산순교성지, 종로성당, 중림동약현성당,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 / 순례자여권 세트 구입비는 전액 이웃사랑실천 기금으로 사용

(2024/가을) 천주교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접수 및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홈페이지(<http://culture.catholic.or.kr>) 참조
문의: 02)727-2047 문화홍보국 문화팀

한국화와 그리스도교 미술	9월23일~10월28일(월) 19시30분~21시
영화를 마음 돌보기	9월24일~10월29일(화) 15시~16시30분
쓰담쓰담 내 마음 알리기: 심리상담가와 놀아도 마음 돌보는 시간	9월24일~10월29일(화) 15시~16시30분
생애사이에 배우는 통탄성가 연주	9월25일~11월6일(수) 19시~21시
아크릴 성탄 성화 그리기	9월25일~10월30일(수) 15시~17시
캘리그래피 성탄 카드 만들기(심화반)	9월25일~10월30일(수) 19시~21시
한국교회사연구소 공개대학	9월25일~11월20일(수) 19시~21시
내가 만든 캘리그래피 성가 연주	9월26일~10월31일(목) 19시~21시
우쿨렐레 성가 연주	9월26일~10월31일(목) 19시~21시
태블릿으로 성탄 카드 만들기	10월2일~11월6일(수) 15시~17시
아이패드로 성탄 이미지콘 만들기	10월2일~11월6일(수) 19시~21시

희망으로 가는 길(낙태된 영혼을 위한 기도와 미사)

대상: 낙태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때: 9월10일 13시30분~16시30분 매월 두번째(화)
곳: 교구청별관 6층 소성당
문의: 02)727-2353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장혜자 개인전: 1전시실
신옥희 개인전: 2전시실
하란 노경애 개인전: 3전시실
전시일정: 9월4일(수)~12일(목)

1435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때, 곳: 9월10일(화) 19시, 명동대성당
금주의 '내 마음의 복녘본당': 평양교구 정주 본당
문의: 02)727-2420 / 9월17일(화)은 추석연휴로 인해 화해미사가 없습니다

2024 신약 성경통독

내용: 신약 성경(2학기) / 강약: 조창수 신부
때: 매주(월) 또는 (화) 13시~15시, 월요성경 온라인 라이브 동시 강의
곳: (월) 가톨릭회관 3층, (화) 예수회센터 106호
문의: 010-8889-5425(문자) 성경영성 아카데미

본당 소임 수도자를 위한 강좌

내용: 가정 · 노인 사목 관련 강의
때: 10월8일~29일 매주(화) 14시~15시30분
곳: 영성센터 B203, B204(명동)
회비: 각 4만원(10월1일 마감)
사목국 홈페이지에서 내용 확인 및 접수
문의: 02)727-2063 사목국 교육지원팀

명동대성당 도슨트 프로그램 하반기 정기일정 안내

명동대성당의 숨겨진 예술품들을 발견해보는 시간 명동대성당 가톨릭미술이야기
때: 9월21일(토)~11월23일(토)
시간: 매주(수) 14시, (토) 10시40분 · 16시30분
일부 시간은 명동대성당 일정으로 인해 운영하지 않습니다 / 소요시간: 약 1시간(인원: 회차당 20명)
신청방법: cc.catholic.or.kr/docent 또는 QR코드 이용하여 접속 후 신청 / 문의: 02)751-4104 홍보위원회
준비물: 송신기에 연결할 수 있는 3.5mm 유선이어폰

병원사목위원회 원목봉사자 교육 안내(3주)

대상: 원목봉사자 및 원목봉사에 관심 있는 모든신자
때: 9월24일~10월8일 매주(화) 13시~17시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회비: 1만5천원
문의: 02)727-2073 병원사목위원회

(1주) 9월24일	성사에 대한 이해(세례성사) 병원과 자원봉사자
(2주) 10월1일	원목봉사자의 개념과 자세 영직돌봄에 대한 이해와 실천
(3주) 10월8일	환자에 대한 이해 비폭력 대화의 맥락으로 관계 이해하기

인준단체 알림

모임

혼인성소 찾기 피정 / 문의: 010-3173-2665

접수: 다음카페 'oh oh my half' / 최영민 신부(예수회)

파티마 성모님 발현 피정

강사: 김재덕 신부(대전교구) /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서울대교구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때, 곳: 9월13일(금) 13시~16시, 가톨릭회관 7층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매주(화) 9월10일 12시30분~16시

곳: 가톨릭회관 7층 / 강사: 김효임 수녀

담당: 김종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9월 '쉼' 침묵 피정(성령선교수녀회)

대상: 만 40세 이하 미혼 여성 / 회비: 5만원

때, 곳: 9월27일(금) 20시~29일(일) 10시, 명륜동

문의: 010-2691-4895 (문자 접수)

The 건강한 엄마 모임

때: 9월28일 14시 / 대상: 부모 없이 성장하신 분,

부모에게 사랑 받지 못한 채 엄마가 되신 분

문의: 02-6487-3375(www.hitof.co.kr) 청년자립지

원센터 T.O.F. 성모 형제의 집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음악 피정

주제: 위로-사랑을 만나다 / 진행: 최준익

때: 10월5일(토) 16시 / 회비: 1만원

곳: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콘솔레이션 홀 B3

문의(접수): 070-4911-2333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곳: 도미니코 피정의 집(주최, 황성) / 010-3340-0201

성경 완독 9월27일(금)~10월5일(토), 11월1일(금)~9일(토)

하느님, 바람, 나(힐링 피정) 10월11일(금)~13일(일)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기획 피정

문의(접수): 043)651-4563 기도학교 사무실

11월15일(금)~17일(일) 허규 신부(서울대교구)

12월20일(금)~22일(일) 이성호 주교(수원교구)

2025년 1월17일(금)~19일(일) 안우식 신부(원주교구)

성 베네딕도 문화영성센터 개관기념 가을 문화 피정

곳: 왜관 수도원 문화영성센터 / 회비: 9만원

계좌: 대구은행 504-10-102896-6 (재)왜관성베

네딕도수도원(접수 후 입금) / 문의: 010-6791-

0071 (문자) 왜관 성 베네딕도 피정의 집

1차 9월27일(금) 15시~28일(토) 13시 승효상 건축가

2차 11월8일(금) 15시~9일(토) 13시 공지영 작가

3차 11월15일(토) 15시~16일(일) 13시 김탁환 작가

예수수도회 영성센터 프로그램

곳: 전철 1·7호선 운수역 10분 거리 / 010-6890-7223

영신수련 2박3일 피정 10월4일~6일, 11월8일~10일

엄마와 딸(미혼) 피정 11월23일~24일

품 그리기(자녀사별 프로그램-10주) 수시

단체 1일 피정(위탁) 대관

부부 나들이 피정(서울대교구 가정선교회)

강사: 한철호 신부, 홍성남 신부, 이현주 회장, 이성호

박사, 이요셉 소장, 김미희 강사 / 비신자 참여 가능

때, 곳: 10월12일(토) 14시~13일(일) 17시, 아론의 집

계좌: 신협 131-022-218086 가정선교회(입금 후 연락)

회비: 20만원(1부부) / 문의: 0505-091-0523,

02)777-1773, 010-3661-5500 고영민 부회장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함께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성무일도·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때: 생태순례 10월28일~30일·11월9일~11일·11월14일

~16일·12월7일~9일·12월13일~15일·2025년 1월17일

~19일·1월23일~25일, 추자도포함 성지순례 10월7일

~10일·11월3일~6일·11월18일~21일·11월24일~27일·12

월1일~4일·3월1일~4일, 연말연시 12월30일~1월2일(한라

산·해돋이·해돋이) / 문의(접수): 064)756-6009, 02)773-1463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성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섬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2025년 연중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10월14일~16일·10월23일~25일·11월1일~3일

·11월7일~9일·11월11일~13일·11월21일~23일·12

월1일~3일·12월6일~8일, 추자도 포함 10월5일~8

일·10월27일~30일·11월16일~19일, 연말연시 12월

29일~2025년 1월1일(한라산·해돋이·해돋이) / 문의(접

수): 064)796-4182, 02)773-1455 제주 자연 피정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곳: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주최)

문의(접수): 010-4906-5722, 031)953-6932

1박2일 9월21일(토)~22일(일), 10월19일(토)~20일(일)

3박4일 9월26일(목)~29일(일), 10월24일(목)~27일(일)

8박9일 10월7일(월)~15일(화), 11월14일(목)~22일(금)

40일 10월4일(금)~11월12일(화),

12월14일(토)~2025년 1월22일(수)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기도회

곳: 전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 버스 환승 500-504-

6512-5535 천주교성령봉사회관 하차 / 02)867-7900

주일기도회 (월) 13시20분~17시 미사: 16시

월요일기도회 (월) 18시30분~22시 미사: 21시

치유기도회 (수) 13시~17시 미사: 16시

로사리오기도회 (목) 13시~17시 미사: 16시

철야기도회 (금) 18시~22시 미사: 21시

생명축복기도회 (토) 16시~19시30분 미사: 18시

청년(루하)기도회 (금) 19시30분~21시30분 미사: 20시30분

예수고난회 서울 명상의 집 피정 / 문의: 02)990-1004

개방의 날 매일 첫번째(금) 9월13일 10시~15시30분

다네이 영성수련(대침묵) 10월25일(금)~27일(일)

단식 피정 11월25일(월)~29일(금)

대침묵 피정(요한묵시록) 12월11일(수)~14일(토)

수요개방미사 매주(수) 15시, 300주년 기념경당

노베나 기도 11월2일(토)~10일(일)까지 9일 동안 미

사·위령기도 봉헌해드립니다

단체 피정(자제 위탁) / 개인 피정 가능

10월 '잠시멈춤' 청년 기도모임

대상: 남녀 청년 15명

때: 10월24일(목) 19시30분

곳: 영성센터(명동) B401호

문의: 010-7197-1390 착한목자수녀회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가톨릭 교수회)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곳: 9월20일(금)~23일(월)·10월18일(금)~21일(월)·

11월15일(금)~18일(일),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 010-9363-7784 글라라

푸른꿈, 제주섬 이야기(생태 피정)

강우일 주교의 제주이야기, 성지순례, 자연순례

대상: 개인, 단체(본당 사목위원, 구반장 환영)

때, 곳: 10월2일~4일·10월25일~27일·11월1일~3일

·11월15일~17일, 성 이시돌 피정의 집(한국통합사목

센터-주최) / 문의: 010-9670-9775, 010-2231-2074

교육

이콘강습(툽쟁 포교 베네딕도회 서울 수녀회)

김 해르만 수녀 / 문의: 010-6746-1997 (문자)

성물·수제 묵주 조각 기초 교육(가톨릭목공예)

접수: cafe.naver.com/cmc04 / 문의: 010-5234-5044

스테인드글라스 성물 만들기(가톨릭스테인드글라스회)

자세한 내용 카페(lukeglass.com) 참조 / 문의: 02)324-0852

도미니코수도회 순교성월 특강·미사

때: 9월1일~30일 매주(수) 19시30분 / 010-5075-3513

곳: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4.19민주묘지역 근처)

성가발성 노래교실 / 문의: 010-9842-8818

'다함께 성가를 TV' 이호중 교수 직장

곳: 시스미나 음악원(주최, 신촌)

명동 성서사립주간 신약 모집

강사: 영원한도움의성모회 수녀 / 회비: 3만원

때: 10월8일부터 매주(화) 10시~12시(15주간)

문의: 010-2337-4547 (문자) 명동성당 가톨릭성서모임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2025년 전(주)간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9월30일(월)~10월10일(목)·전형일 10

월19일(토) / 홈페이지: http://gsot.sogang.ac.kr

문의: 02)705-8668 / 영성·철학상담: 철학을 중심

으로 신학, 사회복지학 세 전공의 협동과정임

석사 신학, 철학(철학·철학상담), 사회복지학(사회복지·

복지상담), 가톨릭사회복지학, 영성·철학상담

박사 신학(교의·조직 / 영성), 가톨릭사회복지

석·박사통합 학(실천·정책·행정), 영성·철학상담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024년 가을 특강

때, 곳: 10월16일~11월13일 매주(수) 5회~13시30분

~15시30분(강의)·12시10분(미사), 교육회관 1층 성당

회비: 5만원 / 문의(접수): 02)6364-2204, 010-3781-2204

10월16일 창조, 아름다움의 탄생 이창우교수

10월23일 자연을 통해 드러나는 하느님의 얼굴 이종찬신부

10월30일 보시니美치도록 좋았다·명화로 보는 창조 윤인복교수

11월6일 천지창조를 만나는 예수여행 바티칸 도슨트 채수환

11월13일 가을 음악회 '태양의 찬가' 남성4중창단 줄리하모니

음악심리 상담사 자격 초급반

때, 곳: 10월16일~30일 매주(수) 13시30분~16시30분,
한곡음악치료연구소(전철 3호선 대청역) / 회비: 15만원
문의: 010-4252-1165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

서울대교구 39기 아버지학교 지원자 모집

때, 곳: 9월29일~10월27일 매주(일) 13시30분
~18시30분(5주간), 석촌동성당 / 회비: 10만원
문의(접수): 0505-503-7080(sufather2009@naver.com)

예수회 생활기도수련원 강좌 / 문의: 010-3845-3045

생활기도수련원 '하느님 안에서 세상보기' 10주 강좌
때: 9월6일부터 매주(금) 13시30분~16시
내용: 이나시오 영신수련 / 강의방법: 현장, Zoom, 녹화강의

순교영성아카데미(순교영성특강) 당일 접수

주제: 성경을 통해 나누는 순교영성 / 회비: 1만원
강사: 김재덕 신부 / 당일 현장접수
때, 곳: 9월12일(목) 14시~16시, 순교성지 새남터
대성전 / 문의: 02)3275-1485(www.kmartyr.or.kr)

서강대학교 미래교육원 도예화가 전문가 과정

때: 9월26일~12월19일 매주(목) 10시~13시(12주 과정)
곳: 서강대학교 김대건관 강의실 / 회비: 39만원(재료비 별도)
1년 이상 과정 수료 후 도예화가 자격증(1급) 응시
자격 부여 / 문의: 02)705-8718(https://scec.sogang.ac.kr)

모집

성 김대건 성가단 하반기 정기 단원 모집

대상: 음악대학 졸업생 및 재학생 / 010-2272-0180
때, 곳: 매주(수) 19시30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제11회 가톨릭영화제 현장 자원활동가 모집

활동기간: 10월24일~27일 / 사전모임: 10월10일·17일
모집기간: 10월10일까지 / 홈페이지(caff.kr) 참조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연합회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1965년 1월 이후 출생자로 심신이 건강한 남녀
봉사 분야: 병원 안내 / 모집: 9월27일(금)까지
문의(접수): 02)2258-5781, 2

명동대성당 가톨릭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대상: 남녀 가톨릭 신자(1979년 이후 출생)
오디션: 9월28일(토) 14시
지원서: 명동성당 홈페이지(PC버전) 또는 www.catholic-choir.or.kr 참조 / 문의: 010-3211-5195 (문자)

청년공간 모락모락 자원봉사자 모집(CLC)

청년들을 위한 3천원 김치찌개 주말식당
내용: 설거지, 재료 준비, 홀서빙 및 관리
때: (토)~(일) 10시~15시·16시~21시(5시간) 택일
곳: 시흥1동 / 식사 제공, 봉사시간 인증
문의: 070-4285-2459 한국CLC

국악성가 한길합창단 단원 모집

때, 곳: 매주(금) 19시, 혜화동 / 문의: 010-2279-0255
지도: 강수근 신부 / 오디오곡: 가톨릭성가 중 1곡

미사

김대건 신부님과 새남터의 순교자들을 위한 현양미사

때, 곳: 9월21일(토), 순교성지 새남터 기념성당
10인 이상의 단체는 꼭 사전 전화접수 요함
문의: 070-8672-0327 새남터 성지안내소

14시 특강	원종현 신부
15시 현양미사	염수정 추가경과 사제단
16시30분 순교자 현양 음악회	소프라노 강혜정

안내

서울베네딕도 상담센터

곳: 돈암동 / 국가지원 전문심리상담 제공기관
문의: 010-2199-3439 서울베네딕도수녀회

제주도 관광 / 문의: 010-4566-6476

제주운전기사회에서 가족, 단체, 골프수송, 관광
및 성지안내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불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 교육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가족, 단기부부상담 / 첫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 (전화상담 가능)

모니카의 집(공동생활가정) 입소 어른신 모집

대상: 일상생활이 가능한 65세 이상 여성 어른신
모집인원: 1명 / 문의: 02)455-3593, 010-8707-6913
곳: 광진구 자양로 33길 36(어린이 대공원 동문)

까리따스 알코올회복센터 / 문의: 02)521-2364

알코올을 의존자와 가족분들, 술로 인한 상처로
부터 회복의 길을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알코올을 의존자 주·야간교육 및 가족교육 운영

익산 성글라리수도원 재건축을 위한 도움 요청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공사비가 부족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도와주시길 청합니다 / 010-6680-0692
계좌: 국민 753501-01-480346 (재)천주교유지재단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렐자비회수녀회)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상담센터

성인 심리상담 및 검사, 아동 놀이치료
곳: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서초구) / 회비: 실습생
1만원, 전문가(1급 8만원·2급 5만원), 놀이치료 6만원
문의: 02)3147-8814(counseling-center.catholic.ac.kr)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문의: 국내입양상담: 02)764-4741~3(www.holyfac.or.kr)

2025년 도림동성당 혼인 미사 접수 / 문의: 02)833-9439

거룩한 혼인 미사(실내·야외)를 위한 아름다운 성전
과 넓은 성모마당(하객 200명 기준·주차 100대 가능),
이현종순교기념관 미니 웨딩(30명 내외 수용 가능)
접수: 9월10일(화) 오전 9시, 도림동성당 사무실(선착순)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증점 입원 및 외래 통원
치료(도박·인터넷 게임) / 홈페이지: www.karf.co.kr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 / 문의(진료·입원): 031)810-9200
곳: 고양시 전철 3호선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가톨릭뇌은행 뇌기증 희망자 모집

치매와 파킨슨병 등의 퇴행성 뇌질환의 극복을
위해 사후 뇌기증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 성인 누구나(만 19세 이상) / 문의: 02)2258-7660
수시 모집 / 관련기관: 과기부 산하 한국뇌은행
기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뇌은행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곳: 천주교 인천교구 묘원(인천 서구 드림로 472)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접수
서류: 교적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기간: 60년(30년 봉안 후 30년 연장 가능)
봉헌금: 400만원·500만원 / 준공: 2025년 상반기(예정)
문의: 032)765-7251(http://haneul.caincheon.or.kr)

전진상 영성센터

곳: 명동 / 문의: 02)726-0700(www.jjscen.or.kr)

제주가 나에게 건넨 이야기(9월 특강)	9월24일(화) 14시~16시 강사: 강우일 주교 / 회비: 2만원
전문 심리상담	가족치료, 개인, 부부, 모래놀이치료, 종합심 리검사·심리정서(불안·우울·분노·공황장애)

유관단체 알림

부모들을 위한 무료 온라인(Zoom) 특강

주제: 아동기·청소년기 자녀에게 신앙 이어주기
강사: 조재연 신부, 이세라 연구원
때: 9월27일(금) 19시30분~21시30분
9월22일(일)까지 접수 / 02)744-0840 햇살사목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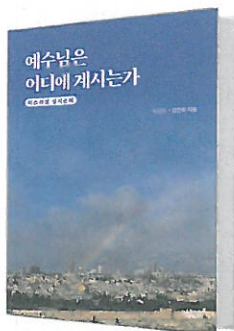
직원모집

가톨릭출판사 직원 모집 / 문의: 02)6365-1829

모집분야: 디자인(웹·콘텐츠, 편집), 재무회계, 인사
총무, 판매 / 서류: 입사지원서(홈페이지·본사양식)
자세한 내용은 본사 홈페이지(www.catholicbook.kr) 공지
사항 반드시 참조 / 이메일(hr1886@catholicbook.kr) 접수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미리내 천주 성삼 성직수도회	수시 / 전화 상담 후 결정	본원	010-5195-3217 성소부
살레시오회	매월 네번째(토) 14시	수도원(대림동)	010-6221-3520 유명일 신부
작은예수수도회	수시	수도원(군자동)	010-8920-2111
천주교서울교구세교회	수시	선교회	02)749-4596, 010-2749-4596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신간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이건리·김연희 지음
지식과감성# | 288쪽 | 1만7천원
문의: 070-4651-3730

38년이라는 긴 세월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아온 시몬과 베로니카, 그 두 사람이 신자로서 예수님의 흔적을 찾아 나서기 위해 예루살렘, 베들레헴, 나자렛, 카나, 타브가 등 이스라엘의 여러 지역을 총 8일에 걸쳐 방문하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겪었던 역사적 사건의 현장을 순례한 생생한 체험담을 담았다.



신간

수험생을 위한 100일 은총 성경 쓰기

생활성서사 편집부 지음
생활성서사 | 208쪽 | 1만2천원
문의: 02)945-5987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크고 작은 시험을 마주한다. 그중 특히 오랜 시간 노력을 기울여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험을 앞뒀을 때는, 시험을 치르는 본인뿐 아니라 이를 곁에서 지켜보는 부모, 형제, 가까운 지인의 마음도 초조하고 힘들다. 이 책은 수험생을 곁에 둔 이들이 수험생을 묵묵히, 그리고 지혜롭게 응원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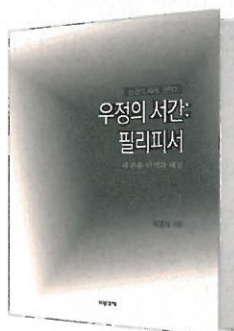


신간

다니엘 신부의 사목 단상

권철호 지음
기쁜소식 | 300쪽 | 1만5천원
문의: 02)762-1194

이 책은 저자가 주임신부로 사목한 20여 년 동안 매주 주보 분당면에 사목 단상이라는 주제로 써 온 글을 추려 묶은 것이다. 올해로 사제수품 30년을 맞이하는 저자는 “시간이 모든 것을 퇴색시켜도 은총의 기억만큼은 더욱 선명해지는 것처럼, 이 단상들이 주님 은총을 다시금 일깨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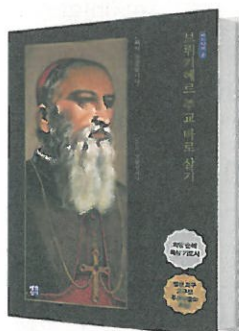


신간

우정의 서간: 필리피서

박영식 지음
기쁜소식 | 180쪽 | 1만3천원
문의: 02)762-1194

필리피서는 바오로 사도가 필리피 신자들과 맺은 우정의 서간으로, 저자는 이를 알기 쉽게 해설했다. 그리스도를 체험한 후 복음의 산 증인이 되었던 필리피 신자들이 몇몇 지도자들의 반목으로 갈라질 위험에 처하지만, 바오로 사도의 이 서간으로 초심으로 돌아가 서로 한마음으로 하느님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의 불을 다시 피우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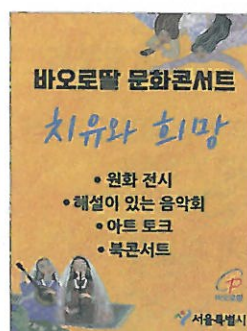


신간

브뤼기에르 주교 바로 살기

생활성서사 편집부 지음
생활성서사 | 152쪽 | 1만1천원
문의: 02)945-5987

초대 조선 대목구장 바르톨로메오 브뤼기에르 주교의 삶과 영성을 오늘날의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묵상 기도서인 이 책은 26주간 매주 브뤼기에르 주교의 생애와 사상을 묵상하며 그분의 글을 읽고, 그 내용을 성경 말씀으로 이해하면서 브뤼기에르 주교가 남겨 준 신앙의 유산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준다.



콘서트

바오로딸 문화콘서트 치유와 희망

때: 9월 20일(금)~23일(월)
곳: 명동대성당 갤러리1898 전관 · 1898광장
신청: 프로그램별로 신청(QR 코드 스캔)
문의: 02)944-0829 / 참가비 무료

성경을 중심으로 한 그림 전시와 음악 공연, 강의, 체험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행사가 우리 곁을 찾아온다. 원화 전시 ‘그림이 있는 성경, 최대한 신부의 해설을 곁들인’ 성경 속 악기, 김유리 작가의 아트 토크 ‘중세 필사본 이야기’, 송봉모 신부와 함께 하는 북콘서트 ‘삶이 고통으로 휘청거릴 때가 마련될 예정이다’.



제2시대문 · 마포지구 대표본당
진주교언회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시대문구 언회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지구장신부 : 최성기(헨리코)

주 임 신 부 : 류시창(베드로)

부주임신부 : 백종원(마르코)

부주임신부 : 박진호(사도요한)

연령회장 : 이범지(루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 주 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창년 20, 창년 30)	유 아 세 례	홀수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평일 미사	•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혼 인 면 담	매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성모신심미사	매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미소짓고, 인사하고, 청진하십시오!”

◎ 한가위 합동위령미사

9월 16일(월)	오전 6시 (평일미사)
9월 17일(화) 한가위	오전 6시 (합동위령미사)
	오전 9시 (합동위령미사)
	오전 11시 (합동위령미사)
9월 18일(수)	오전 6시 (평일미사)
	오전 10시 미사 없습니다.

※ 한가위합동위령미사신청은 9월 15일(주일)까지
사무실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 오전 6시미사 (미사후에 연도 바칩니다.)
오전 9시/11시미사 (미사전에 연도 바칩니다.)

◎ 9월 18일(수)은 사무실 휴무입니다.

※ 미사 지향은 사무실에 미리 신청 바랍니다.

◎ 여성구반장회합 :

일시 : 9월 8일(주일) 12시 / 소성전

◎ 남성울프레이

일시 : 9월 15일(주일) 오전 11시 교중미사 후 301호

◎ 여성울프레이

일시 : 9월 24일(화) 오전 10시미사 후 304호

◎ 병자영성체

일시 : 9월 27일(금) 오전 10시 출발

◎ 수험생을 위한 100일 기도

대상 :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의 학부모

기간 : ~ 11월 14일(목)

일시 : 매주 화,수,금,토,주일 오후 8시 30분 / 소성전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30분 / 304호

문의 : 사도요한 신부님 (010-3854-1317)

◎ 교리실 사용 후 냉방기가 꺼져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초등부 주일학교 교사 모집

아이들과 함께하실 선생님(청년 및 자모)을
모집합니다.

미사시간 : 매 주 토요일 오후 3시

문의 : 로사 교감 (010-7274-7443)

◎ 청년 한푸름성가대 단원 모집

매 주일 오후 6시 청년미사를 찬양으로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 단원을 모집합니다.

연습일시 : 매 주일 오후 4시

문의 : 실비아 단장 (010-6588-2236)

◎ 청년배움터바오로 70기 새내기 모집

대상 : 만 40세 이하 청년 누구나

모집 : ~ 9월 22일(주일)

여는마당 : 9월 22일(주일) 오후 3시 / 304호

문의 : 큰일꾼 이사벨라 (010-2107-3054)

◎ 교무금 책정 현황 (2024. 9. 1)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3년 책정율	2023년 납부율
2,008	779 (38.8%)	744 (37.1%)	43.7%	42.3%

교무금계좌번호 | 우리은행 | 137-04-110875

※ 교무금 자동이체 신청해서 납부 바랍니다.

교무금은 반드시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헌금 (8월 26일 ~ 9월 1일)

은희봉	오만원	김희진	일십만원
김재균	오만원	김인기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김경식·김동희	일십만원
김광숙	일십만원	김성태·김은주	일십만원
곽선모	오천원	허현희	일십만원

◎ 우리들의 정성 (연중 제22주일)

교 무 금14,480,000원
주일헌금6,026,500원

입당	31	봉헌	216,211,511	성체	513,157,188	파견	48
----	----	----	-------------	----	-------------	----	----

